

2024-1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2019-17728 홍석현

교환교: 그라츠 공과 대학교 (TU Graz)

안녕하세요. 2024 년도 1 학기 TU Graz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기계공학부 홍석현입니다. 교환학생 준비 과정과 학기 동안의 생활, 학기 마무리와 소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0. 교환학생을 가는 이유

※개인적인 의견이 강하므로 그냥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

교환학생을 가게 된 동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의 경우, 여러 이유들이 맞물렸습니다. 우선, 유럽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 가장 큼니다. 22 년 겨울방학에 한 달 정도 친구들과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며 각 도시 별 대학교를 지나치며 저기서 공부하면, 저기서 생활해보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환상을 품은 채 23 년도를 다녔습니다. 23 년 1 학기는 군복학 이후 첫 적응기이며 오전부터 밤까지 학교에 있으며 의지를 불태우던 시기였습니다. 23 년 여름 계절학기까지 들으며 저 스스로 너무 공부에만 몰두하며 시간을 보낸 것과 번아웃으로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나머지 학기들을 보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친 현실을 벗어날 돌파구로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낯선 곳으로부터 오는 묘한 설렘과 질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환학생에 지원하였고, 돌이켜보면 이번 교환학기는 저에게 너무나 좋은 기억을 주고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 간 학기라고 느낍니다.

1. 교환교 준비(22.8 月-23.1 月)

저와 같이 교환교를 갔던 친구들인 김준영 학생과 김병식 학생이 질 정리를 해주었고 이전 후기들도 도움이 많이 되었기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만 몇 가지 작성하겠습니다.

-어학 성적

교환학생으로서 필요한 영어 성적과 관련해서는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익/토플/IELTS 등 웬만한 시험에서 B2 레벨을 넘으면 됩니다. 텡스는 없었습니다. 단 유의할 점은 해당 영어 시험에 밑/듣/쓰/읽

(speaking/listening/writing/reading)부분이 모두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공대 프로그램으로 지원했을 때 토익 성적을 제출했지만 TU Graz 에서 한번 더 영어 성적을 요구할 때 토플 시험(일반 토익은 listening 이랑 reading 만 보기 때문에)을 다시 한번 치러서 기준을 통과해 제출했습니다. 저같이 마음 졸이지 마시고 봄 교환학기면 9 월 전에, 가을 교환학기면 3 월 전에 어학 시험은 모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토플이나 IELTS 보길 추천합니다. 기계과의 경우 가서 석사(master) 수업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2 번째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석사 수업을 듣기 위한 조건도 똑같이 B2 를 넘으시면 되니 이 점 참조하세요.

-비자발급

23 년 11 월에 대사관에 예약 컨택을 보내어 24 년 1 월 4 일 대사관에 방문해 해당 서류들을 검토 받고 4-5 일 후에 비자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대사관 가기 전 서류와 현금은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늦게는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이용해보지 못했습니다.

비자 관련해서 비행기 일정 등은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비행기를 예매하시고 Graz 까지 오고 가는 교통편, 숙박(기숙사 혹은 에어비엔비) 등 모든 시기가 딱딱 맞게 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교통편이나 숙박이 확인이 안되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발급 관련해서는 네이버 블로그 글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또한 비자 발급 이전과 비자 만료된 이후에 합쳐서 90 일까지는 웬만한 국가들에 대해 무비자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에 쓰여 있는 기간에 맞춰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숙사/룸

기숙사의 경우 OEAD 라는 업체를 이용해 방을 얻었습니다. Moserhoffgasse 기숙사에 입주했었는데 저희 학기의 경우 TU Graz 다니는 한국 교환학생들 전부 이 기숙사였습니다. (이런 우연이 (^ _ ^)) 개인 룸은 비싸서 보통 2 인 flat 의 구조 (개인실 2 개에 공용 화장실과 주방) 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Infeldgasse 라는 캠퍼스와 가깝고 Neue technik 과도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트램 5 분, 자전거 5 분 정도? 보증금으로 1000 유로 가까이 되는 금액을 지출했으며 월세로는 매달 465 유로

여치를 냈습니다. 이보다 싼 옵션들도 있지만 각각의 차이는 존재하니 이전 후기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고 1월-2월 정도에 교환학생 텔레그램이나 왓츠앱 대화방이 파졌을 때 자기가 렌탈한 집 판다는 글을 올리는 학생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ESN 가입 / Buddy / Pickup

ESN(Erasmus Student Network), 유럽 내 교환학생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U Graz 학생 가입이 완료되면 ESN 가입도 가능하며 FLIXBUS(유럽 내 광역 버스)에서는 10%의 할인과 RyanAir(유럽저가항공)에서는 10% + 추가 수화물 무료라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우리 교환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 가입 이후 Buddy 그룹을 통해 현지 및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며 그룹에 따라 다르지만 같이 밥도 먹고 놀러가기도 합니다. 현지 친구 및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Pick up service의 경우 현지 학생이 기숙사까지 안내를 해주었는데 늦은 밤까지 택시를 불러 타고 안내를 해주어 편하게 기숙사에 왔습니다. (이후 감사의 의미로 한국의 제육 맛을 보여주었습니다 ㅎㅎ)

2. 교환교 생활(24.2月-24.7月)

전반적인 생활을 소개하기 이전에 그래도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German Intensive Course

학기 시작 전 1월 말-2월 중순까지 독일어 기초 강좌를 박세게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오래 하는 것으로 보여 약간은 박세 보이긴 합니다. 저는 듣지 않았지만.. 그래도 독일어를 모르는 것과 어느 정도 아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생활에서 영어 만으로 해도 문제는 없으나 현지, 좀 더 local에 깊숙이 들어가고 싶다면 독일어를 어눌하더라도 몇 문장 아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한국말 하면 우리가 좋게 보듯이 그들도 우리가 독일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 좋게 봅니다. 또한 먼저 외국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학점 인정은 안 되겠지만 언어와 외국 친구들을 만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Tandem

Uni graz 가 주관하는 언어 교환 프로그램이며 자신이 배우고 싶은 언어를 3 개 정도 적어서 맞는 학생들끼리 1 대 1 로 매칭해줍니다. 저의 경우 3-4 월 사이에 독일어로 신청을 해서 4 월에 비로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Uni graz 를 다니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학생과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만나 서로 독일어와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자율 하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서로 몰랐던 문화를 알아가는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Graz 안에 생각보다 한국 문화를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많아서 친해지기도 좋았습니다.

이후 제 전반적인 생활적인 측면에서 작성해보았습니다.

-교통

Graz 라는 도시는 트램이 잘 갖추어진 도시입니다. 버스도 트램이 안 가는 지역과 교외 지역을 이동할 때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1 회권은 약 3 유로 정도로(24 년 3 월 기준) 1 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TOP ticket 이라는 것을 구매해 그라츠 도시가 있는 styria 지역의 대중교통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약 6 개월 기간을 커버할 수 있으며 가격은 저렴하지 않으나 오스트리아 지역 여행 시 메리트가 있는 교통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중고 자전거를 구매하여 그라츠 시내 이동과 자전거로 먼 지역을 이동할 때 잘 사용했습니다. Willhaben 이라는 중고 어플을 쓰다가 동네 자전거 샵에서 중고로 샀습니다. 100 유로라는 비싼가격을 지불하고.. 확실히 자전거를 구하실 예정이라면 빠르게 중고 자전거를 잘 탐색하시길 바랍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신다면 기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ÖBB 에서 Jugend 할인권을 구매해서 저렴한 티켓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3-4 만원 정도 할인쿠폰으로 저렴한 티켓을 얻을 수 있어 잘 이용했습니다. 또 하나 기차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데 이때 자전거 항목을 추가했는지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승객과 자전거 티켓이 구분이 되어 있고 지정된 자리가 있어 담당 직원분이 자전거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저는 7 월에 자전거를 기차에 싣고 여행을 갔습니다.

-수업

TU Graz 에서 기계공학부(실제 학부 이름도 Mechanics and management, 기계 및 경영 과목도 몇 있음) 학사 수업은 전부 독일어로 진행되어 (학사가 3 년 정도

로 짧습니다) 저는 기계과 석사(master) 수업 및 타 과 수업을 신청해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들을 몇 개 정리해보았습니다.

- Design of Production System (기계 석사):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제작 기계, 거대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들 (ex. 회전축, 베어링, 기어 등)을 제작할 때 고려요소 등을 배웁니다. 고체역학 + 그래프 해석이 들어가고 중간에 학과의 지원으로 산업체 견학 가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정상 불참했지만) 교수님께서 영어도 능숙하시지만 수업 자료나 중간중간 독일어를 쓰실 때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불편했습니다.
- Engineering Informatic Labs (기계 석사): 한 주 매일 9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한 Intensive course 였고 주어진 재료로 특정 주제에 대한 팀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학기에는 주제가 잔디깎기 로봇의 동선 최적화 & 정밀 저울 만들기 두 개의 주제가 있었는데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두이노를 사용했고 처음에는 단순해 보이는 주제라고 생각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친구들을 만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 Robot Vision (컴퓨터 석사): 로봇 비전의 개괄적인 이론 수업과 openCV 활용하여 과제를 하는 랩 수업이 있습니다. openCV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머리를 지끈지끈하며 과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 Machine Learning1 (컴퓨터 학사): 기초적인 머신러닝 기법들과 간단한 딥러닝 개념을 배웁니다.
- Computational Biomechanics (Biomedical master): 벡터, tensor 및 여러 hyperelastic 모델들을 배웁니다. 개념을 다 배운 후, Abaqus 라는 FEM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전체 성적의 50프로는 차지하는 마지막 프로젝트..

사실 기계과 석사 수업도 많지만 산업 공학 쪽에서 배우는 것과 겹치며 컴퓨터 관련 수업들도 괜찮게 많이 열려 관심이 있으시다면 컴퓨터 쪽으로도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기계과 온 교환학생 친구들도 타 과 수업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udo 라는 앱은 반드시 꼭 설치하길 바랍니다. 교환학생 OT 에서 아마

Studo pro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고 시간표부터 학과, 학교, 심지어 과목 별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되어 있어 과제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업 시간은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교수님에 따라 시간이 바뀌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 스포츠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스포츠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MUSI 사이트(OT 때 공지를 받았던 것 같음)를 통해 방과 후 스포츠 클래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기, 역도, 펜싱, 수상, 체조 등등 오히려 처음 본 종목이 더 많은 진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괜찮은 등록비로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3-4 월은 클라이밍을 신청했고 5-6 월은 카약 클래스를 신청해 Graz 에 있는 mur 강에서 직접 카약도 타보았습니다. 현지 학생 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도 신청을 하며 개인의 여가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는 것에 인상 깊었습니다.

추가로 저는 매년 4-5 월 정도에 열리는 비엔나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 mur 강 주변 산책로에서 일주일에 3-4 번 정도는 달리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마라톤 대회를 나가기도 했지만 달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비엔나 풀 마라톤으로 참가하는 만큼 나름 제가 만족할 정도로 준비를 잘 했습니다. 이외에 지역 달리기 동호회에도 참여하여 대회 전까지 순발력, 지구력 훈련도 참여해봤습니다. 언어는 잘 통하지 않지만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께서 많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다양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결과 비엔나 마라톤 풀 코스도 무사히 완주할 수 있어 스스로 뿌듯했습니다. ^^ 혹시 달리기/러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European marathon calender 를 검색하시면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나오니 되는 기간에 참여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며 온 시민들이 축제처럼 즐긴다는 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행

봄학기에는 3월-4월 사이에 2주 정도 부활절 방학이 있습니다. 학기 이전에는 잠시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다녀오고 2주동안은 폴란드, 독일, 크로아티아 등 다양한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마르세유, 영국 런던(손흥민 직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의 도시도 학기 중간중간 수업이 없는 주를 이용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자연환경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라츠에는 공항이 있지만 직항으로 갈 수 있는 도시가 많지 않아 비엔나 공항에서 타 지역으로 많이 나아갑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는 경험도 혼자 여행할 때와는 다른, 든든하고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확실히 그라츠가 동유럽에 가까워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의 도시를 flixbus와 같은 광역버스로 돌아다니기 수월했습니다. 트래블월렛과 트래블로그 두 개의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제가 들고 다닌 24년도에는 트래블로그가 다양한 통화에 대해 환율수수료가 0프로라서 체코, 폴란드 등의 나라에서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았던 도시는 이탈리아 일프스인 '돌로미티', 그리고 zell am see 라는 오스트리아의 호수 도시가 좋았습니다. 돌로미티는 여름에 선선하고 돌과 풀들이 잘 어우러진 트래킹 코스, 잘 갖춰진 케이블카 코스가 인상적이고 zell am see 에서는 호수에서 수영하는 그 사람들의 여유가 잘 느껴졌습니다.

-각종 행사

근 매주 혹은 2주 간격으로 수요일마다 office pub 이라는 곳에서 esn pub 이 열립니다. Esn 카드를 보여주면 3 종류의 맥주에 대해 할인된 금액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개강 초와 중강 시기 때 다녀왔는데 10시에 입구까지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

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외에도 인스타그램에서 ESN 계정을 팔로우하면 ESN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4월에 ESN을 통해 graz 근교의 초콜릿 공장을 견학하고 물놀이 시설에서 사우나도 즐겼습니다. 게시물을 잘 보며 관심있는 행사에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각 학과마다 부스를 운영해 캠퍼스 내에서 맥주와 spritzer 라는 와인+탄산수 칵테일을 팔며 개강과 종강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특히 종강 시즌에는 학생 밴드 같이 공연도 하니 그 분위기를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걸 꼭 참여해보고 싶었던 것은 스키캠프입니다. 오스트리아 내 ESN에서 연합하여 가는 스키캠프로 오스트리아의 스키 문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캠프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겨울에 가시거나 2-3월에 가신다면 캠프가 아니더라도 꼭 군데군데 있는 슬로프에서 스키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어렸을 때 태권도 학원을 가듯이 오스트리아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스키를 배운다고 합니다.

3. 교환교 마무리(24.7) 및 소감

마무리의 경우, 거주지 등록을 했던 장소와 비슷한 곳에서 deregistration을 하고 기숙사 정리까지 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저의 경우 수업은 6월 28일에 마무리였고 마지막 시험이 7월 9일이어서 중간에 여행도 가고 남은 과제와 시험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험까지 모두 끝나고는 자전거를 기차에 싣고 오스트리아 첼암제와 힐슈타트를 여행했고 도시를 건너기에는 일반 자전거로는 힘들어 보이고 도시 내부를 둘러볼 때는 오스트리아에서 자전거만한게 없구나 다시 느꼈습니다. 확실히 강과 숲, 중간중간 넓은 들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7월 15일에 마무리 여행을 했습니다. 특히 학기 말 시즌에는 유로 2024라는 유럽 내 나라들끼리 하는 국제 축구대회가 있어 온 도시의 중앙부에는 대형 스크린이 놓여 있고 이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가득찬 설렘과 약간의 걱정과 함께 그라츠로 떠났습니다. 때론 새로운 곳,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환상으로 좋았던 적도 있지만 여행이 끝나고 나서의 무료함, 실수와 변수들로 인한 좌절, 한국과 친구 및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울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남았던 것은 좋은 감정들뿐이지만 그때의 일기나 기록들을 보면 안 좋은 감정들을 기록한 날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

게는 교환학생을 통해 저 자신의 다른 부분을 알게 된 것에 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유럽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여유는 어디에서 온 것이며 나는 이 사회에 잘 적응해나간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라츠에서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좋고 나쁜 경험은 결국 다 추억이며 누군가에게는 선명하게 누군가에게는 희미하게 기억에 남을 수 있지만 결국 그것들이 모여 현재의 나를 구성하고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어떤 경험이든 망설이지 말고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친구, 가족, 이전 후기를 작성해주신 선배님들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서울대 공과대학 국제협력실과 총동문회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